

전북 대전환 원년, 실천 의정으로 새 도약 견인

2025년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였다.

지난 1년, 도의회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혼란 속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회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했다. 나아가 산업 구조의 빠른 흐름 속에서 '전북 대전환' 설계를 위한 내실을 다지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산항 준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지역 재정 특례 등 지역 현안을 직접 정부에 건의하며 중앙과의 소통 물꼬를 이어갔고, 지역 소멸, 청년유입·정착 등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지원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해법 찾기에 전력을 다했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삼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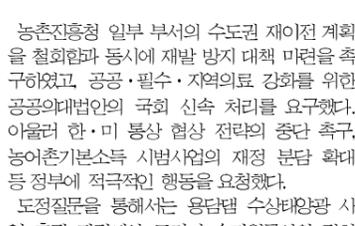
농업복지환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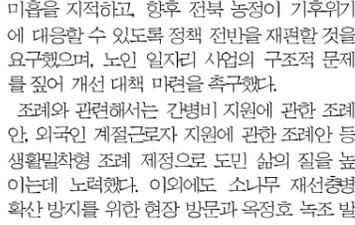
문화유산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유산소방위원회

▶ 인터뷰 - 문승우 도의회 의장

“도민 중심 의정 혁신으로 전북 대전환 시동”

“전북 구조적 변화 이끌기 위한 토대 확실히 다져 내년은 희망 씨앗 틔우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해”

“12대 후반기 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의 대전환을 설계하는 데 한 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025년을 “전북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토대를 확실히 다진 한 해”로 평가했다. 문 의장은 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목표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며 “민생 안정, 산업전환, 복지·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북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역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한 해 가장 큰 성과로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헌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낸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탄핵 정국 당시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군산항 준설, 새만금 조기 개발, 지역 재정 특례,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굵직한 현안

을 직접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도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국회에서 본격화하도록 적극 견인했고 의회 사무처장 자체 승진 및 교육청 파견 인력의 단계적 확대복귀 등 조직력·인사권 독립의 실질화도 한 단계 진전됐다”고 자랑했다.

문 의장은 전북 지방의회의 복원과 확장도 성과로 꼽았다.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재가동해 전북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고, 해외 지방정부·의회와의 우호 협력도 환경·농생명·문화관광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린 의제를 중심으로 넓혀갔다.

지역 소멸 대응 농업 회생, 청년·외국인 정책 등도 주요 성과이다.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시대를 반영한 농민 기본권 보호에 힘썼으며, 청년 유입·정착 정책은 물론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도 추진했다.

문 의장은 “2026년 전북이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전북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도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가적 혼란 속 헌정 질서·민생 지키기 위한 책임 의정 실현 중앙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발판 마련 지역소멸 등 민생 중심 입법 활동으로 지속 가능 전북 성장 모색

생 실태 현황 점검 등 다양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힘썼다.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규, 김만기, 김이재, 나인근, 서난이, 이병도, 임종명 의원은 올 한 해 전북의 민생 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속되는 소비 위축과 변화하는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대출과 보증 기준 완화, 예산 확대, 관세와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했고, 현장을 두루 살피며 기업이 실재로 필요로 하는 정책 방향과 실행 대안을 찾는 과정에 주력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전북 건설경기 침체의 실태를 건설 관련 협회 간담회와 현장 미팅을 통해 파악하고, 공공 건설 사업의 지역 원가 반영,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실행 가능한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연된 내부 개발이 전북의 산업, 관광,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 문화유산소방위원회

문화유산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 부위원

장 김성수, 김정기, 김희수, 박용근, 이명연, 장연국 의원, 한정수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을 전개하며,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연장 지원 체계 구축과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며,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가뭄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닌 철저한 준비라고 지적하며, 실질적 기반 구축에 도정이 나서길 강조했다.

또 2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고준위 방사선패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며 중앙정부에 제도적 대응을 요구했다.

입법 활동에서는 도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졌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사 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등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제106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현장을 찾아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강동화, 박정희,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의원은 학생 중심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미약류 상품류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생과 학교 안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교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다.

학생 중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한 학생 건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복체육중·고등학교와 무주교육지원청을 방문했고,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관련해 전주민의 특색 사업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학생교육 문화권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현장 중심 도민 중심 의정 활동을 최선으로 다녔다. /01만호 기자